

평화선언

81년이라는 긴 세월을 되새겨 봅니다.

그날,

지금과 다름없이 내리쬐는 태양 아래에서,

한 줄기 빛조차 닿지 않는 방공호의 깊은 어둠 속에서,

언제 멈출지 모르는 포탄 속에서,

혹은 몸을 숨긴 곳에서 걸린 말라리아의 고통 속에서,

삶을 갈망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한, 20만이 넘는 생명.

오키나와에는 지금도 동서의 끝에서 끝까지, 남북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그 비극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오키나와 현민의 90% 이상이 오키나와 전투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오키나와 현민이 지옥이라 불렀던 나날을 자신의 일처럼 느끼고, 다시는 이러한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추모해 온 분들, '후세를 위하여'라며 자녀와 손주들에게, 또는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참혹한 체험을 전해 온 분들, 나아가 참극의 무대가 된 장소를 보존해온 분들의 오랜 노력의 성과 덕분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81년 전 그때로부터, 오늘날과 같은 아름다운 섬들을 되찾기까지 선인들의 필사적인 노력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키나와에는 지금도 광대한 미군 기지가 존재하며, 과중한 기지 부담과 기지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문제로 인해 인간의 안전보장이 위협받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

니다. 특히 합의 이후 30년이 지났음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후텐마 비행장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강요가 아닌 일본과 미국 양국 정부 및 오키나와현과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현은 후텐마 비행장의 조속한 반환을 비롯해 과중한 기지 부담 경감을 계속해서 호소해 나갈 것입니다.

“오키나와전의 실상을 접할 때마다 전쟁이란 이토록 잔인하고 이토록 치욕으로 얼룩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키나와현 평화기념자료관에는 이 말로 시작되는 ‘맺음의 말’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최근, 강대국의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로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은 평화를 희구하는 오키나와 현민과 세계 모든 사람들의 바람에서 가장 동떨어진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쟁은 아무리 먼 나라에서 일어난다 해도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세계가 경제 연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 있는 현재, 다른 나라의 군사적 충돌이 직간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선택의 여지없이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올해에는 핵확산금지조약 재검토회의가 개최되었지만, 성과 문서 채택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핵 확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인 만큼, 우리는 더욱 평화와 핵 폐기를 호소해 나가야 합니다. 전쟁이라는 수단을 부정하고 모든 전쟁에 반대하며 전쟁이 아닌 방식을 통한 과제 해결을 추구함으로써, 일본국 헌법에도 국민의 염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항구 평화와 그 과정으로서의 핵 폐기를 지향하는 것은 결코 공허한 이상론이 아닌,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무입

니다.

이 마부니(오키나와전의 마지막 격전지)의 땅에는 오키나와전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의 이름을 적군과 아군, 국적 등의 구별 없이 새긴다는 이념 아래 세워진 평화의 초석이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 구축과 유지에 공헌한 분들을 기리는 오키나와 평화상은 올해 제13회 시상식을 진행하며, 현 내에서 평화와 이어지는 일상 속의 사회 공헌 활동에 힘쓰는 분들을 '추라우치나 풀뿌리 평화공헌상'으로 표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을 계승하고 평화의 마음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오키나와이기에, 세계 평화의 실현을 위해 공헌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키나와현에서는 오키나와전의 실상과 교훈, 그리고 지금까지의 연구 축적을 바탕으로 항구 평화와 인간 안보의 확립을 실현하기 위해, 전후 100년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비전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거 이 땅에서 펼쳐졌던 사건을 다음 세대에 책임감을 가지고 올바르게 전달하고, 평화에 대해 배우고 생각하는 행보를 이어가면서, 세계 평화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여 평화 창조의 거점이자 국제 협력과 공헌을 위한 거점으로서 세계 속에서 확고한 지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령의 날을 맞아 희생되신 모든 영령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세계의 항구 평화와 핵 폐기에 오키나와가 기여하는 미래를 지향하며, 불전(不戰)을 다짐하고, 반전(反戰)을 외치며, 비전(非戰)의 길을 모색할 것을 결의하며 여기에 선언합니다.

2026년 6월 23일

오키나와현지사 다마키 데니

<시마쿠투바·영어번역 에센스>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오키나와 전투의 비극은 지금도 깊이 새겨져 있다. 우리는 전쟁의 비참함을 공유하고, 두 번 다시 어리석은 행위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먼 나라의 전쟁조차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 속에서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것, 평화를 실현하는 것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임으로 요구되고 있다.

오키나와현은 전쟁의 경험을 계승하는 오키나와야말로 평화에 공헌할 수 있다고 믿으며, 세계인들과 함께 그 역할을 다할 것을 여기에 다짐한다.